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점검 -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2024. 4. 4.(목) 15: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엽)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2년 연속('22년 ~ '23년) 불법체류 감축 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출입국사범 처리 과정 전반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 현장점검을 마친 법무부장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시설이 노후하여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체류, 사범, 보호, 국적,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성공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유치,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이민자의 사회통합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장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일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발전과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균형잡힌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담당 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하용국 (02-2110-4010)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주호 (02-2110-4014) |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